현대소설연구(제88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12.88.149

‘붉은 사랑’이라는 성 각본(Sexual Script)과 여성의 정서적 주권

–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의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노 지 승**

요약

이 글에서 다루었던 강경애의 자전적 소설 「원고료 이백원」(1935)과 박화성의 자전적 소설 『북국의 여명』(1935) 그리고 박화성의 자서전 『눈보라의 운하』(1963)는 ‘붉은 사랑’이라는 표어로서 상징되었던 사회주의 이념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축이 조선의 사회주의자 여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기 서사의 텍스트들이다. 강경애와 박화성은 자신들의 삶을 소재로 하여 사회주의적 성 각본인 ‘붉은 사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남녀 사이에 작동하는 미시적인 권력의 모습과 여성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을 재현해내었다. 여성-사회주의자-작가의 교차적 정체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이들의 서사는 언어화되지 못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한 사건으로 주목될 만하다. 여성들의 정서적 주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들의 자기서사는 여성지라는 소통의 장에서 보다 친밀하다고 가정된 여성 독자들에게 여성 작가 자신의 내면을 열어 보임으로써 삶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민과 깨달음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글쓰기 방식이었다.

주제어: 강경애, 박화성,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 정서적 주권, 불안, 자기 서사, 붉은 사랑, 성 각본, 여성지, 「원고료 이백원」, 『북국의 여명』, 『눈보라의 운하』

* 이 논문은 2022년도 인천대학교 자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서론: ‘붉은 사랑’과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의 교차적 정체성
2. ‘붉은 사랑’과 불안의 감정: 강경애, 「원고료 이백원」
3. ‘붉은 사랑’의 해소와 작가의 탄생: 박화성의 자기 서사들
4. 결론: 정서적 주권 찾기 혹은 자기를 서사화하기

1. 서론: ‘붉은 사랑’과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의 교차적 정체성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까지 소위 ‘붉은 사랑(Red love)’이라고 일컬어졌던 남녀 사회주의자들의 이성애 방식은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 여성들에게 이념과 사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성 각본(sexual script)으로 받아들여졌다.[1] 러시아의 혁명가 콜론타이의 소설 『바실리사 말리기나*Vasilisa Malygina*』(1923)가 1927년 미국에서 ‘붉은 사랑(Red Love)’라는 제목으로 영역된 데에서 유래된 이 용어는[2] 식민지 조선에서는 ‘적연(赤戀)’, ‘붉은 연애’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 ‘붉은 사랑’

1) 성 각본(sexual script)은 1972년 John H. Gagnon과 William Simon의 책 *Sexual Conduct* 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합의되는 성적 행위와 관계들을 지칭한다. 성적 관계를 맺는 인물들은 무대 위의 배우처럼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구성된 각본들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적절한 성 각본을 선택하여 행동한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교처럼 신봉되었던 ‘자유연애’ 역시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성 각본이 이입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은 개항 이후 수입되어 들어온 서구의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해 자유연애를 비롯한 서구의 근대성을 학습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명한 서구 문학 작품의 인물들은 조선의 독자들에게 어떤 삶의 지침이나 행동 방식을 제시해 줌으로써 행위의 준거가 되는 롤 모델이 되곤 했다. 콜론타이의 소설을 통해 알려진 ‘붉은 사랑’도 식민지 시기 조선어로 번역된 적은 없지만 일어판 책을 통해 당시의 젊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동지들 간의 연애라는 매력적인 성 각본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소설 『바실리사 말리기나』의 영어판은 미국 뉴욕에 소재해 있는 ‘Seven Arts’에서 1927년 간행되었다. 1927년 영어판 *Red Love*에는 콜론타이의 영어판 서문이 게재되어 있었다.

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붉은 사랑'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번져나간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단어는 주로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조롱하고 그 '문란함'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 마시듯 성욕을 자유롭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콜론타이의 이른바 '물 한잔 이론(glass of water theory)'을 '붉은 사랑'이라고 오해하거나 『바실리사 말리기나』 이외에 콜론타이가 쓴 소설 특히 「삼대의 사랑*The Loves of Three Generations*」에서 어머니의 연인과 관계를 맺는 주인공 게니아의 행위를 '붉은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3] 이러한 오해가 보여주듯이 식민지 조선에서 '붉은 사랑'은 비판적 맥락에서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동일한 목표를 실천해 가는 동지로서의 관계가 이성애적 관계로 발전해나감으로써 이념과 사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낭만적 이성애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붉은 사랑'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적 연애와 결혼 제도에 대항하는 매우 매력적인 관계 맺음으로 여겨졌다.[4] 특히 독자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붉은 사랑'은 연애라는 사적인 관계 맺음과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이라는 공적 활동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이성애적 관계로 비춰지기도 했다.[5] 그

3) 식민지 조선에서의 '붉은 사랑(연애)'의 수용과 문학적 재현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서정자(2005), 이태숙(2006), 이미림(2020)의 논문이 주로 1930년대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홍창수(2004)와 배상미(2014)의 논문은 페미니즘 혹은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당시의 '붉은 사랑'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을 발굴하여 단행본으로 간행한 바 있는 연구자 서정자의 논문은 일찍이 사회주의자들의 사랑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북국의 여명』에서 발견하고 있다.

4) '붉은 사랑'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콜론타이의 나라인 러시아에서는 물론, 미국과 유럽 전역의 전 세계 남녀 사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ed. R.Barracough, H. Bowen-Struyk, and P. Rabinowitz, *Red Love Across the Pacific*, Palgrave, 2015,xii. 1920~30년대 태평양 주변 지역에서의 '붉은 사랑'의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붉은 사랑'이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적 성적 모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5) 이태숙, 「붉은 연애와 새로운 여성」, 『한국현대소설연구』, 29, 2006 ;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

러나 다른 한편으로 '붉은 사랑'에는 단지 이상적이라고만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큼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여성 사회주의자들 대다수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에 비해 경력이나 조직 내 인지도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오라비나 연인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에 입문하거나 이들의 영향력에 힘입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론장에서 누구의 여동생, 아내, 연인으로 소개되곤 했다.[6]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동지에 대한 여성들의 존경과 애정은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여지가 있었다. '붉은 사랑'의 각본에 의거해, 동지이자 연인인 남성에 대한 헌신은 파트너인 여성들에게 부르주아 결혼제도에 의한 아내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대의를 위한 동지의 역할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겪는 부당함이 '대의'를 위한 정당한 희생으로 포장될 가능성 또한 있었다.

이러한 모순과 균열이 존재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가정과 운동의 내부에서 겪은 어떤 경험을 자신의 언

서의 콜론타이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3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연구자 이태숙은 '붉은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여성상에 주목하면서 강경애, 박화성, 이기영 등의 소설에서 '붉은 사랑(연애)'이 여성 인물에게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거나 사적 영역(사생활)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말한다. 연구자 배상미는 이와는 다소 상이하게 '붉은 사랑'이 공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한다. 연구자들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 방식은 다르지만 '붉은 사랑'의 관계맺음을 통해 사회주의자 여성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영역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6)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공론장에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여동생으로 소개되곤 했다. 남성들의 이름을 통해 언급되지 않았던 이들로는 독자적으로 사회주의에 입문했던 정칠성이나 산파로 일해 번 돈으로 남성 동지들을 도운 정종명을 들 수 있다. 정종명은 산파로서 번 돈으로 동지들을 보살폈고 수감 중 출산하는 여성동지들을 돕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에게 '누이'나 '어머니' 같은 동지로 여겨졌다. 정칠성도 동경기예학교에서 습득한 수예 실력으로 상점을 내거나 광산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독자적으로 꾸려갔다. 한편 허정숙도 동료 남성들에게 예속되지 않은 예외 중 하나였지만 그 역시 운동가들을 변호하던 아버지 허헌의 비호 속에서 사회주의자로 성장했다.

어로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지식인 '셀럽'으로서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사는 매우 높은 편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글을 써서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가 그들의 내면과 사생활을 매우 제한적 형태로 보여주었을 뿐이다. 혹은 직접적으로 '붉은 사랑'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조차도 애써 답변을 삼가는 경우도 있었다.[7]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동지에 대한 신뢰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대의가 모든 흠결을 뛰어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한다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믿음 때문이거나 혹은 자신들은 이미 부르주아 사회가 규정한 사랑과 결혼의 기준을 거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기준에 맞춰 자신들의 사생활이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8] 유럽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여성이 겪는 불평등 문제를 꺼내드는 여성 혁명가들을 이른바 분리주의자 혹은 부르주아적 여성해방론자로 몰고 갔던 흐름이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여성 문제를 독립적인 의제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운동 내부의 분위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9]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7) 대표적인 여성 사회주의자 중 하나였던 정칠성은 이른바 '붉은 사랑'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연애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에도 "말해도 조선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입을 다물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삼갔다. 정칠성, 「적연 비판 꼬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야」, 『삼천리』, 1929. 9, 7-8면. 한편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리던 허정숙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소문들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1세대 여성작가인 나혜석이 「이혼고백장」, 「신생활에 들면서」 등을 통해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심경을 글로 남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8) 이들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연인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일반적인 형태의 혹은 법률에 의거한 '가족'과 '결혼'의 테두리 내에 있지 않았다. 설령 그들이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은 제도에 의한 보호와 인정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9)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여성 혁명가들이 여성 억압이나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 이들이 계급 문제보다 젠더 문제를 앞세움으로써 결과적으

침묵은 자신들을 둘러싼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들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성 중심의 사회주의자 그룹 내에서 '생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10)]

그런데 바로 침묵으로 삭제된 사적 경험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겪은 사적 경험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내부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로서 겪을 수 있는 사회주의-가부장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해 침묵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체험에 언어와 서사를 부여한 이들은 바로 여성이면서 사회주의자이면서 작가라는 교차적 정체성을 가진 일군의 여성-사회주의자-작가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이념을 자기 삶의 중요한 이정표로 삼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작가'이자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받은 '지식인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아울러 갖고 있었다. 여성-사회주의자-작가라는 교차적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여성-사회주의자'로서 그들의 경험을 서사화할 수 있게 했다. 문자 그대로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의 교차적 정체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자기 재현의 서사들은 언어화되지 못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한 사건으로 주목될 만하다.

로 사회주의 운동 내부를 분열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들의 우려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담론 내에서 젠더 의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유럽에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 거세게 불었고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이러한 '여성해방' 운동이 중간 계급 이상의 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참정권과 상속권 투쟁 운동으로 여기고 경계했다. '붉은 사랑'의 입안자였던 콜론타이도 여성해방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동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여성해방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0)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해 침묵한 것은 대해 연구자 장영은은 여성 사회주의자 허정숙을 예로 들어 그의 침묵이 갖는 의미는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그 침묵 자체는 남성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한다. 장영은, 『변신하는 여자들』, 오월의봄, 2022, 269면. 여기에 대해 동의하며 침묵이 생존 방식이 된 이유에 대해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중적으로 작용했음을 덧붙이고 싶다.

자기 경험의 서사화 즉 이른바 자기 서사(self-narrative)라 불릴 수 있는 그들의 글쓰기는 직접적으로 자서전의 형식을 취하거나 '자전적 소설(autobiographical novel)'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11] 자전적 소설의 경우 그것이 '소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한, 비록 그것이 자신의 삶을 대상으로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노출시키는 데 따르는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점도 있었다. 이들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삶을 소재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작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은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기 서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은 자기 서사를 통해 사회주의적 대의가 일상적 삶 특히 여성/남성으로 젠더화된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가 혹은 '여성' 사회주의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바로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강경애와 박화성은 일찍이 이 질문과 관련한 특별한 자기 서사를 남긴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이다. 이들은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사회주의자이었거나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이른바 동반자 작가로 지칭되었다. 강경애의 자전적 소설인 「원고료 이백원」(1935)과 박화성의 자전적 소설 『북국의 여명』(1935) 그리고 해방 후 1963년에 발표한 박화성의 자서전 『눈보라의 운하』는 '붉은 사랑'을 갈구하고 이를 성취했던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체험을 담은 일종의 후일담 서사라 할 수 있다. 이들 텍스트들은 '붉은 사랑'이라는 표어로서 결합되었던 이념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축이 실제 조선의 사회주의자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기 서사의

11) 이 글에서 자기 서사(self-narrative)는 자서전(autobiography)뿐만 아니라 작가의 생애적 사실을 매우 많이 반영하고 있는 자전적 소설(autobiographical novel)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소설과 자서전은 분명 다른 유형의 글쓰기 형태이지만 자서전도 작가의 착오와 기억의 오류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허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자전적 소설은 허구의 장르이지만 작가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 작가의 분신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두 개의 글쓰기는 동일하게 자기 서사에 포함될 수 있다.

텍스트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기 서사에는 친밀한 남녀 사이에서 작동하는 미시적인 권력의 모습, 결혼 생활에서 체험된 '궁핍', 동지이자 배우자인 남성들에게서 입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가졌던 이념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 있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여성인물들의 정서적 주권(affective sovereignty)이 침해되었을 때 그들이 겪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정체와 근원을 그들의 자기 서사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12)]

2. '붉은 사랑'과 불안의 감정: 강경애, 「원고료 이백원」(1935)

1935년 『신가정』에 게재된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은 그 어떤 소설보다 작가 강경애의 삶이 많이 반영된 자전적 소설이다. 간도에서 살고 있는 사회주의자 남편과 소설을 쓰는 아내라는 설정은 물론, 소설가 아내가 회고하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일들-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었던 사건, 월사금을 못 내서 고생하던 일, 형부의 원조를 받은 일, 젊은 날 '화

12) 동유럽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 혁명가들의 삶을 추적해 왔던 크리스틴 고드시는 '정서적 주권(affective sovereignty)'이라는 단어를 자본주의가 초래한 개인의 불안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고드시는 자본주의적 질서가 남녀관계를 지배하게 되면 여성의 불안감은 증폭되어 정서적 주권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고드시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들보다 정서적 주권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라 언급한다. 크리스틴 고드시, 『왜 여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그리고 경제적 독립에 대한 논의들』, 김희연 역, 이학사, 2021, 235면. 고드시의 언급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파악해보자면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적 지향이 비록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그들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초래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식민지 조선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자 자본주의적 질서가 자리 잡힌 사회였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여성들이 갖고 있던 이념적 지향점이 각각 달랐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적 시선과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된 불안을 겪었다.

냥년'이라 손가락질 받던 일 등은 실제 강경애의 생애적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소설은 동아일보(소설에는 'D일보'로 등장)에 장편소설 『인간문제』(1934)를 연재한 직후, 강경애가 겪었을 법한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다.

소설 「원고료 이백원」의 일인칭 서술자 '나'는 K로 불리는 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후배인 K는 '나'에게 연애관이나 결혼관에 대해 물어왔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써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에게 인생의 어떤 참조점이나 교훈을 들려주고자 한다. 사회주의자 남편과 가난하게 살던 '나'는 D신문사에 장편 소설을 연재하고 원고료로 2백 원을 받아 자신과 남편에게 필요한 털외투나 양산 등을 사고 금니를 할 꿈에 부풀게 된다. 그녀는 어릴 적 가난으로 인해 차별과 수모를 겪었고 사회주의자가 되어서는 남의 아내가 신던 구두를 남편의 허락을 받아 얻어 신을 정도로 궁핍하게 사는 처지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아내의 돈으로 몸이 아픈 동지를 병원에 보내는 데 쓰거나 감옥에 가 있는 동지의 가족들을 위해 쓰자고 결정해 버린다. '나'가 울며 남편에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리며 "홰눙년(화냥년-인용자)"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고 퍼붓는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그의 손에 쫓겨난 '나'는 갈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

> 고향으로 가나? 고향…… 저년 또 다 살았나. 글쎄 그렇지. 며칠 살겠기, 저런 홰눙년하고 비웃는 고향 사람들의 얼굴과 어머니의 안타까워하는 모양! 나는 흠칫하였다. 그러면 서울로 가서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에 취직을 해? 종래의 여기자들이 염문만 퍼진 것을 보아 나 역시 별다른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 말로는 타락할 것밖에는 없는 듯……그러면 어디로 어떡허나. 동경으로 가서 공부나 좀 해봐. 학비는 무엇이 대구. 내 처지로서는 공부가 아니라 타락 공부가 될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때 어쩐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듯, 나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누가 반가이 맞받아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듯하구나. 그나마 호랑이 같이 씨근거리며 저 방안에 앉아 있을 저 사나이가 아니면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듯하구나.[13]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쫓겨난 '나'는 그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갈 곳이 없던 '나'는 결국 집안으로 들어가고 부부는 화해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듯이 K에게 전달하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다. "K야, 나와 같은 처지에서 금시계 금반지 털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게냐. 그것을 사는 돈으로 동지의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냐. 더구나 남편의 동지임에랴. 아니 내 동지가 아니냐."[14] '나'는 남편의 동지가 곧 나의 동지이며 자신의 수입과 행위에 대한 남편의 통제를, 동지를 구하는 '대의'의 실천으로 이해하며 결론내고 있다.

「원고료 이백원」은 여성 운동가들에 대한 남성 운동가들의 통제 방식이 부르주아 혹은 중간계급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방식과는 사뭇 달랐음을 보여준다. 부르주아 남성들과는 달리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가난했고 따라서 이들의 아내들은 사회주의자 남성들과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뚜렷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15] 사회주의자 여성에 대한 사회주의자 남성의 권위와 권력은 부르주아 남성들과 달리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이념에 대한 지적(知的) 우위와 조

13) 이상경,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565면.

14) 위의 책, 같은 면.

15)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적 지위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주의 아들, 딸들인 경우도 많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은 이들도 많았다. 사회주의자들의 가난과 궁핍은 자발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들의 가난은 그들이 원래 속한 출신 가정의 계급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개인의 욕망에 의한 소비를 금기시하고 수입이 있어도 사회주의자 동지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에서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소설의 작가인 강경애가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사회주의자인 남편의 인맥 덕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16] 「원고료 이백원」에서 재현된 사회주의자 남편의 권력은 브레드위너로서의 남편의 권력과는 사뭇 다른 유형의 것이다. 오히려 사회주의자 남성의 '가난'은 그들에게 도덕적 우월함을 부여한다. 이 궁핍과 가난은 가장으로서의 약점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이들의 이기심과 사치를 단죄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한다. 「원고료 이백원」의 '남편'이 아내 수입의 용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아내의 불만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난과 자기 희생이라는 도덕적 우월함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사치'는 바로 식민지 시기 공론장에서 일반적으로 신여성들의 소비적인 태도를 묘사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징벌하는 데 쓰이는 단어였다. 세간의 기준에 따라 그 자신들도 신여성으로 묶일 수 있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신여성과 구별될 수 있도록 처신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인증 받는 것은 무엇보다 매우 중요했다.[17] 「원고료 이백원」의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를 지지고 볶고, 상판에 밀가루 칠을 하고' '입으로만 무산자를 떠드는' '모던껄이라는 두리뭉둥년'이 될 것이냐며 몰아붙이고 있듯이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판정하는 이들이 바로 남성

16) 이상경에 따르면 강경애의 실질적인 데뷔작이었던 「어머니와 딸」이 『혜성(彗星)』에 게재된 것은 장하일의 친구인 김경재(「원고료 이백원」에서는 '김경호'라는 남편의 친구가 등장)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상경, 앞의 책, 1999, 181면. 강경애가 죽은 뒤 장하일은 해방 후 『로동신문』의 부주필로 있으면서 1946년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단행본으로 간행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지로서 아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겠지만 여러모로 장하일은 자신이 아내의 커리어와 수입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17)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치스러운' 신여성과 자신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신여성'들의 사치와 허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칠성, 「신여성이란 무엇-가치대폭락의 허물은 누구에게」, 『조선일보』, 1926. 1. 4.

동지들인 한, 여성들은 남성 동지들의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나'의 남편은 감옥에 간 동지들이 '아내보다 더 소중하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관계의 우위를 점한다. '붉은 사랑'의 입안자인 콜론타이는 궁핍한 프롤레타리아 남녀 간의 불평등을 '동지적 연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지만[18] 오히려 가난과 궁핍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주의자 남성들의 도덕적 우월 의식은 「원고료 이백원」에서 재현된 바에 따르면 여성 개인의 욕망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그렇다면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성장을 다루면서 여성 개인의 독립적인 주체성을 강조한 소설은 없었을까. 남성 작가이지만 역시 동반자 작가인 유진오의 「송군 남매와 나」(1930)는 '순정'이라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성장해 나갔는가를 일본인 청년 '이시까와'의 눈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19] "프로문학에서 연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운동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쓴[20] 유진오의 이 소설에서, 중심인물인 '순정'은 사회주의자가 되어 가출한 젊은 여성이다. 순정은 행상 일을 하여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남성 사회주의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친해질 정도로 적극적인 인물이다. 순정은 최일준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 사회주의자와 동거하게 되었는데 그는 순정을 대등한 운동가로 보지 않고 집안일을 강요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순정은 결국 그와 헤어진다. 남성 운동가와 헤어진 이후 순정은 결과적으로 꽤 잘 알려진 여성 사회주의자로 성장한다.

18) 콜론타이, 「성과 계급투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엮음, 책갈피, 2015, 206면.

19) 이 소설의 서술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나'라는 일인칭 화자에게 이시까와가 조선의 여성 사회주의자 '순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시까와와 '나'는 모두 일본인으로 이들 가운데 이시까와는 일본에서 파견된 식민지 관료인 아버지를 따라 조선에서 산 적이 있었고 조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중 송 군과 그의 사촌누이인 순정을 알게 된다.

20) 유진오는 소설 「송군 남매와 나」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프로문학에서도 연애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운동의 문제로서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 유진오, 「프로 문학과 연애」, 『동광』 제28호, 1931.12, 46면.

이러한 결말은 여성 사회주의자가 등장하는 서사들 가운데 최상의 성공적인 스토리에 가까운 서사일 것이다. 유진오의 이 소설은 여성 사회주의자를 뭇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성으로 묘사하지도 않고 '붉은 사랑'의 당위성과 이상적인 면모를 과장하며 미화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소설은 가출한 여성 사회주의자와 그의 독립적인 정신 그리고 아울러 그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이기심까지 소위 남녀 사회주의자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그려낸다. 여러 측면에서 이 소설 속 순정의 모습은 여성 작가인 강경애가 그려낸 여성 사회주의자의 치욕스러운 모습과는 대비된다. 그렇다면 유진오의 이 소설은 여성 사회주의자의 '이상적' 모습을 '잘' 그려낸 것인가. '순정'이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겪는 여러 난관을 뚫고 거물급 사회주의자가 되는 설정은 비교적 '이상적인' 결말이지만 이 소설은 그와 동시에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겪는 내면의 문제는 완전히 삭제하고 있다. 즉 이 소설에는 강경애의 소설에서 전달되는 바와 같이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느꼈을 법한 내면적 갈등과 불안은 삭제되어 있다.

특히 유진오의 이 소설은 순정이라는 인물에게서 여성이라는 젠더적 정체성을 기각시키고 순정을 남성화된 혹은 비성적(desexualized) 존재로 묘사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는 아무 때나 뭇 남성들 앞에서 적삼을 훌렁 벗어던지거나 "검게 그을은 튼튼한 두 다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이고 젊은 남성과의 취침하면서도 긴장감 없이 코를 골며 숙면을 취할 정도로 남성의 존재를 이성으로서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이들은 여성다움이 없는 순정을 바라보는 이시까와와 같은 사회주의자 남성들이다. 당시에 여성 사회주의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속적 환상을 이효석과 같은 일부 남성 작가들이 갖고 있던 것과는 달리, 유진오는 이 소설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갖는 남성들의 환상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21] 유진오 소설은 남성들의 성적 환상도 무너뜨리지만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는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순정'이라는 인물에게 감

정이입하거나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요소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유진오의 소설에서 '순정'이라는 인물이 여성스러움이나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묘사된 것과는 달리, 강경애 소설의 '나'는 반대로 소위 '여성스러움' 혹은 여성이라는 이름의 정체성과 소비 욕망을 쉽게 버리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다. '나'는 자신의 소비 욕망이 남편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되자 "죽여라. 죽여라."고 받아치며 울분을 터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을 떠나 홀로 산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불안을 느낀다. 유명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할 정도로 알려진 소설가인 '나'의 사회적 지위도 오히려 그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가 상상하듯이 쉽게 가십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가정에 가둘 경우 과감하게 그곳을 뛰쳐나와야 한다는 원칙을 외쳤다.[22] 그리고 남성 동지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한편으로는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기도 했다.[23] 그러나 여성 개인으로서 갖는 욕망을 사회주의적 대의로 억누르는 것 그리고 남성 동지와의 종속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 소설이 그려내는 바처럼 쉽지 않았다. '나'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감시와 차가운 시선은 단지 그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만은

21) 유진오의 「송군 남매와 나」의 주요인물인 순정이라는 인물에게서 흔히 여성적 자질이라고 부르는 여성성을 제거하고 비성적(desexualized) 인물로 만드는 전략은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덧씌워진 유혹적인 섹슈얼리티와 대조적이다. 유진오의 이 소설과는 달리 이효석은 자신만의 독특한 미학적 기법으로 여성 사회주의자를 에로틱하게 그려낸 바 있다. 이효석 소설의 '붉은 사랑'의 재현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림, 「1930년대 전반기 이효석 소설의 마르크시즘 차용 양상」, 『한민족어문학』 제87집, 2020 참조.

22) 정칠성, 「적연 비판, 꼬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야」, 『삼천리』, 1929. 9, 5면.

23) 남편 혹은 연인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허정숙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택한 남성들은 모두 사회주의 운동계에 속한 남성들이었고 서로 잘 아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허정숙은 남성 중심의 사회주의자 연대를 연애라는 사적인 관계로 망가뜨렸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아니라 평범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와 여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세간의 시선들 그리고 자립적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발생된다. 결국 고민 끝에 강경애의 분신인 서술자 '나'는 끝내 "호랑이처럼 방안에서 씨근대는" 남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강경애의 자전적 소설 텍스트인 「원고료 이백원」이 동아일보사에서 간행했던 여성지 『신가정』 1935년 2월호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아일보』는 강경애가 1934년 『인간문제』를 연재한 바 있었던 일간지였고 여성지 『신가정』 자체도 강경에의 단편소설들이 제일 많이 게재된 매체였다.[24] 여성지인 이 잡지의 내포 독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작가 강경애가 독자에게 자신의 삶이 반영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려줄 수 있게 된 조건이었다. 3장에서 분석하게 될 작가 박화성도 1935년 12월 『신가정』에 S라는 가상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수필을 통해 '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을 털어놓은 바 있다.[25] 수신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가정했을 때 이들 작가들은 자신들의 가장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묘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작가들의 내면의 고통과 고난은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적절했다. 특히 「원고료 이백원」에서 'K'로 불리는 친밀한 수신자의 존재는 강경애가 자기 서사를 펼쳐 보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자 나아가 『신가정』의 여성독자들이 자신을 대입시킬 수 있는 비어있는 기호이다.[26] 강경애의 분신인 '나'는 후배인

24) 「원고료 이백원」은 물론 단편 소설 「월사금」, 「젊은 어머니」, 「채전」, 「소금」, 「파경」 등이 1933년과 1936년에 걸쳐 『신가정』에 발표되었다.

25) S라는 인물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이 글은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이 게재된 해인 1935년 12월에 『신가정』에 게재되었다.

26) 개화기 이후 여성지들은 꾸준히 간행되어 왔고 여성지에 글을 싣는 여성작가와 여성독자들은 여성지를 보다 친밀하게 소통하는 장으로 이해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친밀함을 전제로 한 여성지의 소통방식은 여성들의 자기 서사가 창작되고 소비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러한 소통 방식을 전제로 하여 여성지에는 특히 작가가 실제 겪은 내밀한 인생 이야기가 자기 서사의 여러 형태인 수기, 일기, 편지 등의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여성지와 여성 독자들의 교호작용에 대해서는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女性(1936~1940』을 중

‘K’에게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했다고, 스위트 홈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관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 ‘나’의 이러한 결론은 모든 사적 욕망 특히 여성의 소비적 욕망을 기각하고 대의에 희생해야 한다는 본인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개인의 독립적 삶에 대해 불안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그 불안에 굴복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불안’이라는 자신의 내면적 흔들림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성 독자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작가가 여성독자에게 말을 거는 형식은 「원고료 이백원」의 자기 서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소통구조가 ‘붉은 사랑’의 현실적 모습과 한계를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결국 ‘나’가 굴복하고만, 이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분석할 박화성의 자기 서사와 관련지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3. ‘붉은 사랑’의 해소와 작가의 탄생: 박화성의 자기 서사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한정된 재화를 배분하고 소비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자본주의-가부장제 결혼 각본에서[27]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기각하거나 최소한도로 낮추거나

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2호, 2009, 참조.

27) 가사와 육아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사적 공간에서 착취되는 핵심적인 여성 노동이며 가사와 육아를 빌미로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주고 고용하게 된다. 여성 착취의 근원은 노동자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여성의 무임노동을 사회경제적 활동이나 자본축적의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 · 김민철 역, 갈무리, 2011, 21면. 콜론타이가 가사와 육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이었음을 간파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가사, 육아 등의 재생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타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원고료 이백원」의 '나'가 사고 싶어 했던 털외투, 양산, 구두 그리고 양복 등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소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여러 재화이기도 하다. 여러 재화의 구매 행위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돌봄 노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소비행위를 무가치한 개인적 욕망과 사치로 치부하는 전략은 여성을 통제하는 자본주의-가부장제의 전략이면서 동시에 「원고료 이백원」에서 묘사되듯이 '가난'이라는 도덕적 우월감과 맞물려 사회주의자 남성들이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강요된 혹은 내면화된 궁핍의 이데올로기와 '붉은 사랑'이라는 결혼 각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해 회의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다. 이 경우를 박화성의 자기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화성의 대표적인 자기 재현의 서사들은 각각 1930년대와 60년대에 약 30년에 간의 시차(時差)를 두고 발표되었다. 장편소설로서 『조선중앙일보』에 193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재된 『북국의 여명』은 작가 박화성의 실제 삶을 소설의 소재로 삼은 전형적인 자전적 소설이다. 이후 1963년 박화성은 여성지 『여원(女苑)』에 소설이 아닌 자서전 형태의 『눈보라의 운하』를 연재하게 된다. 연재소설로 게재된 『북국의 여명』이 서술과 묘사에 있어서 소설의 규약에 더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반면 『눈보라의 운하』는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하는 전형적인 자서전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28]

노동이 단지 사적 공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모순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28) 필립 르쥔,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1998, 33면. 르쥔에 따르면 자서전의 저자에게 이전에 다른 텍스트들이 있어야 하면 저자 자체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르쥔은 자서전의 조건으로 자서전의 저자와 이야기의 화자 그리고 이야기되는 인물의 동일하다는 점을 들면서 자서전 뿐만 아니라 일기, 수필 등의 장르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한 『북국의 여명』이 한 여성이 오랜 성장 기간을 거쳐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사회주의자가 되기까지의 삶을 초점화한 성장 소설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눈보라의 운하』는 회갑을 맞은 문단의 원로 작가가 자신의 60여 년 간의 삶을 회고하며 식민체험,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한 사람의 여성 작가가 겪어낸 여러 풍파를 서사화하고 있다.

각 텍스트들이 게재된 지면과 발표 시기 역시 두 텍스트 간의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었던 식민지 시기 1935년의 『조선중앙일보』와 분단 후 5.16 직후의 여성지 『여원』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당시 『조선중앙일보』가 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진보적인 매체라면 여성지 『여원』은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전혀 갖지 않은, 오히려 보수적 색채를 가진 대중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3년의 텍스트를 집필할 당시에 작가 박화성은 자신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두 텍스트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조선'과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분단 후 '한국'이라는, 동일하게 모두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생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63년 『눈보라의 운하』 가 장르적으로는 사실을 재현하는 자서전 텍스트이지만 1935년의 소설 『북국의 여명』 에 비해 진실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63년의 『눈보라의 운하』 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의한 오류나 무의식적인 자기기만으로 인해 소설 못지않은 허구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텍스트를 더 진실한 혹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정 내리는 것보다 두 편의 텍스트를 겹쳐 읽었을 때 포착되는 인물의 욕망과 내면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이 두 편의 텍스트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는 바는 작가 자신이 체험했던 '붉은 사랑'이라는 결혼 각본에 대해 작가 박화성이 가졌던 생각과 태도의 변화이다.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의 주요인물인 '효순'은

변절한 남편과의 결혼을 해소하고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앞세워 스스로 독립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북국(만주)로 떠나는 효순의 행위는 이 텍스트에서 드러나 있는 바대로 주인공 '효순'의 정체성 상의 변화들- 신여성에서 사회주의자로 그리고 투옥된 남편과 아이들을 건사하는 여성 가장의 모습으로 이동하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29] 그러나 이러한 중첩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효순'은 그 중첩된 정체성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과 이념 추구에의 의지를 앞세운다. 남편의 전향으로 부부가 꿈꾸었던 '붉은 사랑'은 잠시 위기에 처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1930년대 중반 당시 작가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국의 여명』의 전반부는 '효순'이 여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동경 유학을 가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주를 이룬다. 유학생활 중 '효순'은 독서 모임을 통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역시 사회주의자인 김준호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이 소설의 후반부는 '효순'의 출산과 육아 그리고 남편 김준호가 농민조합결성 사건으로 투옥되면서 겪는 생활고 등이 주로 묘사되어 있다. 장래가 촉망되는 영민한 유학생이었던 효순은 결혼 후 투옥된 김준호와 동료의 사식을 매일 준비해 나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삯바느질을 하거나 다른 아이의 젖어미 노릇을 하기도 한다. 그 와중에 그는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아이를 잃을 뻔하기도 하는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효순은 자신의 고난은 준호의 아내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동지로서 겪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싸워 이기겠다"[30]는 의지를 불태운다. 정작 효순을 '북국'으로 떠

29) 서여진, 「신여성-사회주의자-여성 가장으로서의 작가 박화성」, 『현대소설연구』 제82호, 2021. 연구자 서여진이 지적하듯이 『북국의 여명』에서는 붉은 사랑을 실현해가는 여성 사회주의자의 모습과 남편이 투옥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계를 꾸려가야 하는 여성 가장의 면모가 복합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나게 만든 것은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전향 때문이었다. 남편이 전향하고 가출옥한 뒤 자신의 전향을 합리화하는 말을 들으며 효순은 "사년 동안 핏물 들여 써 놓은 역사의 페이지가 불살라지는 듯한"[31] 심한 절망감을 느낀다. 이후 만주로 이미 망명한 동지들인 상현과 순정의 초청을 받아들여 효순은 두 아이를 노모에게 맡기고 사회주의자로서 평소 "동경했던 북쪽나라이자 유일한 고향처럼 가고 싶어하던"[32] 만주행 기차를 타게 된다.

효순이 두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만주행 열차를 타는 상황은, 실제 작가 박화성이 품었던 생각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의 생애적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소설적 설정이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노모에게 맡기고 만주로 떠난다는 설정에는 아이가 딸린 여성 사회주의자로서 느꼈던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엿보인다. 남편 준호와 결혼하기 전까지 '효순'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목포와 서울 그리고 동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동안 효순은 채용식, 손병주와 같은 주변의 남성들의 구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부남이었던 리창우와 연애 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동경 유학에 스폰서 역할을 했던 최진과 약혼 관계에 있기도 했다. 무수한 구애자들 중 효순이 김준호를 선택한 것은 분명 그가 "실천을 통해 얻어진 동지"[33]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약혼자였던 최진이 효순의 사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효순과 불화한 것과는 반대로 김준호는 효순에게 사랑과 이념의 실천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남편감이었다. 즉 효순의 연애와 결혼 과정은 이른바 '붉은 사랑'이 제공하는 결혼 각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또한 효순이 분골쇄신하며 사회

30) 박화성,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3, 454면.
31) 위의 책, 478면.
32) 위의 책, 471면.
33) 위의 책, 411면.

주의 운동가인 남편과 가정에 헌신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변절하자 그를 떠나 동지들과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북국'으로 떠난 것조차도 역시 '붉은 사랑'이 제공하는 결혼 각본을 내면화하고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북국의 여명』의 효순은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의 '나'처럼 궁핍과 자기 희생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말의 회의적인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효순을 실망시킨 것은 궁핍과 희생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포기한 남편의 변절이었다. 남편 김준호는 자신의 사상적 변화에도 여전히 효순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효순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전향한 남편과의 결혼을 더 이상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설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옥바라지하던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박화성은 이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소설을 쓴 직후인 1936년경 작가 박화성은 남편과 헤어진다. 1935년 이 소설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박화성은 자신의 결혼생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지만 박화성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소설 속에 묘사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약 30년 후에 쓰인 텍스트인 『눈보라의 운하』에서 남편과 헤어질 무렵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3년 『눈보라의 운하』에서 박화성은 『북국의 여명』에서 '김준호'로 명명된 남편 김국진과 헤어질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출옥 후 만주 용정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편을 찾아가고 남편은 아내에게 가족보다 동지가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하게 된다.

> 나는 남편을 설득하고자 같은 이유를 다 말했으나 그는 이미 자기의 동지들을 그곳에서 규합하고 있다고 했다.
>
> "내가 중해요? 동지가 중해요?"
>
> "동지가 더 중하지."
>
> "그럼 나를 버릴지언정 동지는 못 버리겠네."

"물론!"

"애들은요?"

"애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요?"

이런 논법이 있을까? 하기야 그는 과거에도

"언제나 내겐 당신만이 확대되어 있을 뿐이오. 애들은 당신의 그늘에서 가물대는데 지나지 않아."

했던 것이다. …인용자 중략…

다음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용정을 떠났다. 그의 철저한 신념……처자를 버리면서까지 집착하는 그를 남편으로서 의탁할 수 있을까? 국민학교의 입학에도 아빠의 사상은 방해가 되지 않았던가? 나는 어머니께 언제 가겠다고 전보를 했다니 경성역에는 이미 천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34]

『눈보라의 운하』에 따르면 정작 '북국' 즉 만주로 떠난 사람은 소설 『북국의 여명』에서와는 달리, 아내가 아니라 출소한 남편이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김팔봉의 소개로 남편 김국진은 출옥 후 만주에서 교사직을 얻어 홀로 떠나고 박화성은 목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남편을 가끔 만나러 간 만주에서 박화성은 강경애를 만나 교류를 갖기도 한다. 남편 김국진은 만주에서 동지들을 규합해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고 목포로 돌아오도록 남편을 종용한 박화성은 그에게서 '아이들과 아내보다 동지가 소중하다는 말'을 듣는다.

즉 『눈보라의 운하』에 따르면 남편에 대해 실망하게 된 것은 『북국의 여명』에서처럼 출소한 남편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동지를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눈보라의 운하』 의 이러한 기술이 기억의 오류이거나 자기 합리화, 자기기만일 가

34)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 기행문: 박화성전집 14권』,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195-196면.

능성도 있지만 가족보다 동지가 중요하다는 남편 김국진의 말은 아내의 수입으로 감옥에 간 동지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던 강경애 「원고료 이백원」의 남편의 생각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뜻을 수긍한 소설 「원고료 이백원」의 '나'와는 달리, 가족보다 동지가 우선한다는 남편의 말을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박화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혼을 결심하는 박화성에게 '붉은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환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 박화성이 남편 김국진에게 결별을 고하자 간도에서 박화성을 만났던 강경애는 김국진의 근황을 전하며 그가 "처음으로 담배를 빨았고 술을 폭음하여 거리에서 쓰러졌었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돌아오라"는 '길고 뜨거운 권고의 편지'를 보내 박화성을 설득하고자 한다.[35] 박화성에게 보낸 '그에게 돌아오라'는 강경애의 편지 문구에서 「원고료 이백원」에서 가출 후 거리를 헤매다 '방안에서 호랑이처럼 씨근거리는 남자'에게 돌아갔던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다시 1935년의 자전적 소설 『북국의 여명』으로 돌아가 보자. 결과적으로 자서전 『눈보라의 운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박화성의 소설 『북국의 여명』은 '붉은 사랑'이라는 성 각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랑과 이념이 결합된 '붉은 사랑'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성 각본이 결혼과 동거를 통해 현실화 되었을 때 여성에게 가난과 궁핍에 따른 무한정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효순'은 깨닫고는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이러한 모순에 대한 자각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을 뒤흔들 정도로 의식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와는 달리 1960년대 박화성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남편의 무책임과 이기심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합리화한다. 결과적으로 60년대 박화성은 당시의 반공주의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회주의자 남편을 보

35) 위의 책, 201면.

다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고 그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치러야 했던 희생과 고난을 적극 드러낼 수 있었다.

작가 박화성의 생애에서 사회주의자 남편 김국진과의 결별과 사업가 천독근('천씨')과의 재혼은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만하다. 가난한 사회주의자 대신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가를 선택했다는 것 이외에도 첫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박화성의 정체성은 '여성 사회주의자'에서 '여성 작가'로 정체성의 중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그 '여성 작가'라는 정체성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한계 내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며 유지되어야 했다. 여성 사회주의자가 가난과 싸워야 했고 감옥에 간 남편 대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썼다면 '부르주아의 아내'[36]는 생계부양자 남편의 심기를 살피며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사업가 남편의 뒷바라지와 돌봄 노동으로 인해 한동안 글을 쓰지 못하는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37] 『눈보라의 운하』에서 묘사되는 바에 따르면 아내를 '세계적인 작가'가 되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싶다며 재혼한 남편은 아내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자 "여편네가 건방지게 소설이 다 뭐야"[38]하면서 유명 작가 아내에게 곧잘 신경질을 부렸고 아내는 남편이 잠든 후에 울면서 소설을 써야 했다.

두 편의 텍스트를 연결해 보면 사회주의자의 아내이든, 사업가의 아내이든 결국 자기 서사 속 박화성의 분신들은 결혼 후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정체성에 강하게 매이게 되었다. 가난한 '사회주의자' 아내에게는 대의를

36) 박화성은 『눈보라의 운하』에서 사회주의자 김국진과 헤어지고 엔지니어 출신의 사업가 천독근과 결혼한 일로 인해 한때의 동지들로부터 '부르주아의 아내'로 경원시 당했던 사실을 쓰고 있다.(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248면) 박화성은 남편 천독근이 '가난한' 월급쟁이 사장이었을 뿐이라 기술하고 있지만 남편 천독근은 "고향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낼"(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279면) 만큼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7) 재혼 후 박화성은 손님 접대, 육아 등의 일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5시 반에 일어나는 고역을 치렀다고 말한다.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221면.

38) 위의 책, 304면.

위해 희생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이 명분이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힘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대의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면서 즉 '붉은 사랑'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성 각본을 거부하면서 포기되었다. 이후 박화성은 '이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남한을 지배하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박화성 스스로도 해방 후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공들을 "건실하던 직공들이 해방과 함께 돌변했다"[39]고 기술할 정도로 사회주의를 더 이상 자신의 이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즉 자서전을 쓸 무렵인 60년대 초반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신념을 은폐했다기보다도 본인 스스로도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파업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이미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포기하고 아이들 곁에서 혹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박화성이 선택한 '길'은 바로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 때 여성 사회주의자였던 박화성의 전향 방식이었다. 부르주아 가정이라는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휘되는 남성의 권력을 인정하는 데서 빚어지는 그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글을 쓰는 것- 이 결심이 사실상 해방 후 소위 한국여성문학계의 원로 작가 박화성을 낳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때 신봉했던 '붉은 사랑'이라는 사회주의적 성 각본은 그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 '붉은 사랑'이 그에게 끼친 영향이나 교훈은 아이러니하다. "만일 그(첫 남편 김국진-인용자)가 영어의 몸이 되지 않고 끝내 함께만 살았던들 장편이나 단편이나 그 만큼 써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난을 겪으면서도 정신적인 부담이 없이 혼자만 살아왔기에 오로지 집필에 열중했을 것이 아닌가"[40] '나'는 첫 남편이 투옥된 후 독립적인 생계형 작가로서의 삶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붉은 사랑'의 각본에 뒤따르는 가난과 궁핍은 무한정의

39) 위의 책, 251면.

40) 위의 책, 205면.

희생을 요하는 것이었지만 남편이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한, 그 남편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자전적 소설인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와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 그리고 자서전인 『눈보라의 운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텍스트들 속의 사회주의자 남편들은 경제적 능력을 앞세운 권력보다는 사회주의자로서 갖는 상징 권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의 상대가 되는 여성인물들이 남성의 권력으로부터 '정서적 주권(affective sovereignty)'을 얼마나 획득했는가의 여부이다. 실제 이들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들의 정서적 주권은 거의 관련이 없다. 문제는 독립적인 생존 가능성과 관련 없이 그들 여성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 혹은 조직과 공동체로부터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의 '나'는 남편과의 결혼이 깨지고 난 후의 자신을 상상하며 '불안'에 시달렸다. '나'가 굴복한 것은 남편의 권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불안감에 대해서이다. 반면 박화성 텍스트들의 인물들은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글을 쓰며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1936년 박화성은 「여류 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에서 이미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사는 여성 작가의 고달픔을 서술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고심담을 읽어 주시는 이 있어 우리 여성작가들의 더구나 나같이 가지각색의 고통을 도맡아 가진 작가의 고심은 이러하였구나를 10분의 1만이라도 알아주시면"[41] 좋겠다고 말하는 박화성에게서 홀로 서기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박화성이 얻은 이러한 자신감은 강경애의 분신과는 달리 스스로 생존했던 체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박화성의 분신이 얻은 이러한 자신감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발휘되었다.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을

41) 박화성,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신가정』, 1935.12, 37면.

통해 그는 사회주의적 성 각본은 거부했지만 남성을 브레드위너로 삼는 전형적인 자본주의-가부장제의 결혼 각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혼에서 그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정서적 주권을 획득했고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도 실제로 글을 써서 생계를 꾸리기도 했지만[42] 그 자신감은 남편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즉 가부장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얻은 정서적 주권 역시 불완전한 것이었다.

4. 결론: 정서적 주권 찾기 혹은 자기를 서사화하기

이 글에서 다루었던 자기 서사들이 주는 일종의 교훈이 있다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남성의 권력과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혹은 먹여 살려야 한다고) 믿는 생계유지자 가장의 권력 중 어떤 쪽의 남성 권력이 더 문제적인지를 판정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붉은 사랑'이라는 성 각본은 매력적인 삶의 한 방식으로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이끌었지만 그 이면에도 여성의 '불안'을 매개로 하여 가부장적 권력이 그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경애의 자기 서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박화성의 자서전 『눈보라의 운하』에 따르면 박화성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회주의자 남편과 자발적으로 헤어지면서 '붉은 사랑'의 성 각본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그가 새로 선택한 사업가 남편 역시 아내를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박화성의 분신들은 작가로서 홀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

42) 박화성의 『눈보라의 운하』에서 따르면 그의 두 번째 남편 천독근은 해방 후에 잠시 친일파로 몰렸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사업가'로서 인민군 점령기에 곤욕을 치를 뻔하는 등 사업가로서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이승만 정권기였다고 박화성은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화성은 자신이 글을 씀으로써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 등을 대는 등 생계를 떠안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여주었다는 점에서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원」의 '나' 에 비해 정서적 주권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방 이후에 쓰인 『눈보라의 운하』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얻은 정서적 주권은 완전하지 못했고 그의 자신감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발휘되었다.

강경애와 박화성은 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설이든 자서전이든 자기 서사의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가정』과 『여원』과 같은 여성지라는 담론의 장은 작가와 독자와의 친밀성과 함께 일종의 여성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30년대 중반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북국의 여명』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식적으로 내보여야 했다면 여성지는 이보다는 훨씬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는 자기 서사라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이 느꼈던 '관계'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레나타 살레클은 주체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대타자가 주체에게 "대타자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며 불안한 주체는 상상으로 자기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한다.[43] 식민지 조선의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들에게 대타자는 바로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남성 동지였고 '붉은 사랑'은 대타자가 바라는 것을 여성들에게 수락하게 만드는 성 각본이었다. 이 대타자는 여성 사회주의자 작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늘 자신들의 위치와 진정성을 점검하게 만든다. 그들의 불안은 대타자의 기대와 기준에 못 미칠지 모른다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자기 서사 쓰기는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미지화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려는 다시 말해 정서적 주권을 찾으려는 시도 그 자체이다. 그 결과가 '붉은 사랑'이라는 성 각본을 거부하는 것이든 거부하지 않은 것이든 그들의 자기 서사 쓰기는 '불안'과 거기서 초래되는

43) 레나타 살레클, 『불안들』, 박광호 역, 후마니타스, 2015, 266-267면.

고통을 내보임으로써 오히려 주체를 보호하려는 행위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비록 언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낯선 것이고 또 타자에게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44] 여성작가의 자기 서사 쓰기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직접 체험한 사건들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보다 자신에게 속한 언어로 붙들어 두고자 한 필사의 노력이다.

44) 데리다는 모국어라 할지라도 언어는 본질적으로 낯선 것이고 본질적으로 타자성이 개입되어 있으며 글쓰기란 내 것인 언어를 도구 삼아 의도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 내 것이 아닌 타자의 언어로 약속하는 것이라 말한다. 김은주, 『듣기의 윤리-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 2020, 113-115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강경애, 『강경애 전집』, 이상경 편, 소명출판, 1999.

박화성, 「여류 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 『신가정』, 1935.12.

박화성,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3.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 기행문: 박화성전집 14권』,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04.

유진오, 「송군 남매와 나」, 『조선일보』, 1930. 9.3~9.17.

2. 기사

유진오, 「프로 문학과 연애」, 『동광』 제28호, 1931. 12.

정칠성, 「신여성이란 무엇-가치대폭락의 허물은 누구에게」, 『조선일보』, 1926. 1. 4.

정칠성, 「적연 비판 꼬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야」, 『삼천리』, 1929. 9.

3. 단행본

고드시, 크리스틴 『왜 여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그리고 경제적 독립에 대한 논의들』, 김희연 역, 이학사, 2021.

김은주, 『듣기의 윤리-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 2020.

르쥔, 필립,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1998.

살레츨, 레나타 『불안들』, 박광호 역, 후마니타스, 2015.

장영은, 『변신하는 여자들』, 오월의봄, 2022.

정진희 엮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책갈피, 2015.

페데리치, 실비아,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 · 김민철 역, 갈무리, 2011.

ed. R. Barracough, H. Bowen-Struyk, and P. Rabinowitz, *Red Love Across the Pacific*, Palgrave, 2015.

4. 논문

노지승, 「여성지 독자와 서사 읽기의 즐거움: 『女性(1936~1940)』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2호, 2009, 101-135면.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33호, 2014, 299-330면.

서여진, 「신여성-사회주의자-여성 가장으로서의 작가 박화성」, 『현대소설연구』 제82호, 2021. 290-323면.

서정자, 「‘주의자’의 성, 사랑, 결혼」, 『현대소설연구』 제26호, 2005. 89-112면.
이미림, 「1930년대 전반기 이효석 소설의 마르크시즘 차용 양상」, 『한민족어문학』 제87집, 2020, 245-273면.
이태숙, 「붉은 연애와 새로운 여성」, 『현대소설연구』 제29호, 2006. 159-181면.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상허학보』 제13집, 2004, 317-362면.

<Abstract>

Sexual Script Called “Red Love” and Women’s Affective Sovereignty
−Focusing on Female Socialist Writers’ Self-Narratives

Roh Jiseung

Kang Kyung-ae and Park Hwa-sung, were the female socialists writers who exposed the contradiction of “Red love” through their self-narratives. They were socialist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and were referred to as so-called fellow writers who sympathized with socialism. Especially Kang Kyung-ae's autobiographical novel *Manuscript Fee two hundred won*(1935), Park Hwa-sung's autobiographical novel *The Dawn of the North*(1935), and Park Hwa-sung's autobiography *The Canal of Snowstorm*(1963) are the important self- narrative texts of female socialists in Colonial Korea. They represented the microscopic power that works between men and women at a time when the socialist sexual script “Red Love” becomes a reality based on their lives. Their narratives, which reflect the voices of women, socialists, and writers' intersectional identity, deserve attention as an event that gave “language” to the experiences of unverbalized female socialists. In their own narratives, they showed anxiety while responding in different ways to the “poverty” forced in the marriage of socialists. Their self-narratives,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women's affective sovereignty, was a way of writing to share their worries about the direction of life with implied women readers by opening their mind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of women's magazines.

Key words: Kang Kyung-ae, Park Hwa-sung, Female Socialist Writer, Affective Sovereignty, Anxiety, Self-Narrative, Red Love, Sexual Script, Women’s Magazine, *Manuscript Fee two hundred won*(1935), *The Dawn of the North*(1935), *The Canal of Snowstorm*(1963)

투 고 일: 2022년 11월 11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